

# 핀란드 견문기

복지국의 현장을 보면서

Travel Skethes in Finland



글 | 李鶴榮

(Lee, Hak Young)

건축시공기술사, 시인, 우림엔지니어링 고문.

저서 : 자연·인간·그리고 건축 외.

E-mail : hykor@hanmail.net

## 헬싱키로 향하는 길목

2008년 7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을 경유 대형 유람선 실자라인 항로를 이용하여 핀란드 헬싱키로 향하는 길목이다. 5만8천 톤급의 이 대형 선박은 진동이 별로 없어 마치 땅위에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히 항해했다. 백야라 야간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잠을 청하고 5시에 기상하여 6시에 식사완료. 군대식 훈련같이 숙달된 행동. 핀란드 트루크 항에 하선 하니 7시. 새로운 버스와 러시아 세르게이 기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헬싱키까지 가는 시간은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단다.

여기 제한 속도는 시속 120km. 가는 길에는 노란 유채꽃이 반기고 있었고 하늘에는 뭉개 구름들이 한국의 늦가을을 연상케 했다. 한 시간 달려가니 도로에는 초지, 저지 구릉지가 많았고, 연변에는 유채꽃 군락이 자주 보였다. 9시 30분에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도착했다.

핀란드는 인구 530만을 가진 공화국. 이 나라의 1/3은 북극권에 속하며, 수도는 헬싱키. 북위 60~70° 위치하나, 비교적 온화하고, 북쪽으로 스웨덴, 서쪽으로 보트니아 만, 남쪽으로 핀란드만, 동쪽으로 러시아 연방에 접해 있고 1917년 독립하였다.

면적 338,145km<sup>2</sup>, 국토의 10%가 호수로 분화구가 많은 나라이다.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5천불. 이 나라는 세금이 19.5~65%로 차등 적용되며, 개인으로부터 징수한다니 고율이지만, 노후를 보장받는다니 열심히 세금내고 살만하나라다.



▲ 백야중의 석양

별장은 물과 가까이 있어 접근하기 위해서라도 배를 구입해야하는 이유란다. 배와 집 구입도 대출받았으니 월부 갚느라 정신없이 살며, 개인적으로는 별로 여유가 없다고 한다.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인듯... 그런 욕심의 한계는 끝이 없을 것이고, 자족할 수 있다면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도시를 개발할 때엔 시가지의 30%는 녹지로 남겨두는 원칙이 관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도시로서의 분위기는 안정된 느낌이었다. 19세기에는 러시아 황제의 지배 아래 수도가 되어 독일인 건축가 엔겔의 의해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 1952년 이곳에서 올림픽이 열렸더니 역사 깊은 도시. 첫 인상은 참신한 도시계획과 녹지공간이 인상적이었다.

### 원로원 광장과 헬싱키대성당

시내를 진입하여, 현지인과 결혼한 가이드 김일순 씨를 소개받았다.

돌 40만개의 화장암을 깔았다는 광장 주변에



▲ 헬싱키 대성당

는 국무총리가 집무하는 정부청사, 헬싱키대학이 자리하고 있고, 광장 중앙에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 우뚝 서있다. 원로원 광장이 내려다보이는 정면 계단 위에는 카를 엔겔이 설계한 헬싱키 대성당이 우뚝 솟아 있다. 돔을 축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디자인으로 처음에는 중앙에 돔이 하나뿐이었으나 엔겔이 죽은 뒤 다른 건축가의 손에 의해 작은 돔이 네 귀퉁이에 덧붙여졌다.

대부분 국민이 개신교를 믿는 국가라서, 성상들은 별로 없었다. 십자 모양의 평면과 십자가만 벽에 장식 되어있었다.

대성당과 함께 세 개의 건물 모두 엔겔이 설계한 것인데 그 중에서 대학 도서관이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힌다고 한다.

광장에서 뒷 블록을 돌아서 약 백 미터 걸어 올라가니, 광장시장이 나타났다. 그런데 시장이라지만, 항구이자 선착장 같았다. 항구 앞에 핀란드 특산품과 신선한 어패류, 야채, 과일 시장이 관광객들과 함께 북적거렸다.

삶의 터전-시장을 돌면서 단상(斷想)한편...

화강암에 보도 위에 스치는 불협화음  
호기심 더하며 이어지는 이방인들  
무엇이 궁금한지 신호를 기다린다.  
교차로는 정신없이 사람을 나눈다.

체리 향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그림자  
낮이 밤 같고, 밤이 낮 같은 백야(白夜)  
해산물도 풍부하고, 과일도 탐스럽다.  
오감이 즐겁고, 낭만과 추억이 쌓이는  
핀란드 헬싱키 포구의 광장시장...

시장 옆에는 대통령 관저가 있고 광장 서쪽에는 하비스 아만다 분수상이 있다. 특히 체리는 시즌이라 싱싱하고 맛이 좋았다. 아직 지상철이 운행되고 있었으며, 자전거 또한 많이 눈에 띄었고, 시내엔 도로 보수와 확장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 암석교회

1969년 티오모와 투오모 수오마라이넨 형제의 설계로 바위산 위에 세워져 있다. 암산 주변은 공동주택들로 개발되어 이 바위산이 시에서 골치 끼리였는데, 이들 형제의 교회설치 제안을 시청이 받아드려, 세계의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부러웠다. 암석에서 보석을 캔 듯, 이런 것을 '원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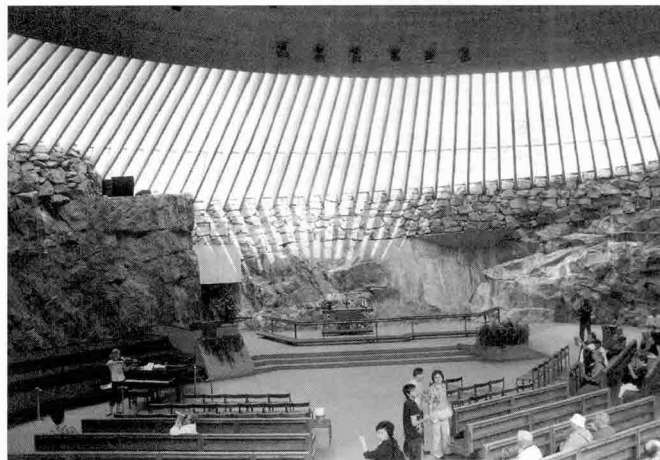
두 형제는 기존의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깨뜨린 최첨단의 교회를 설계했다.

교회 내부는 천연 암석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암석 사이로 물이 흐르고, 파이프 오르간이 이색적이다. 140개의 채광창이 있고, 주일엔 85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 밑에는 6천명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

천정에는 22km의 동선을 나선형으로 감아 시공됐으며 벤치는 자작나무로 만든 것 이란다. 교회 크기가 11,000평방미터로 무엇보다 큰 특징은 하나의 큰 통 바위를 파서 만들었다는 점이 이색적이다.

자연의 음향효과를 충분히 고려해 음악연주장으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주말에는 결혼식이 자주 있어 핀란드인들의 생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객석 뒤에는 암석 사이로 습기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자연과 인공을 넘나드는 현대식 교회에 기술적 처리와 공법 등 세밀한 부분을 둘러보며, 자연과 조화시키려는 인간의 노력과 공학적으로 대처한 공법에 수공하고 현관을 나섰다.



▲ 암석교회 내부

### 시벨리우스 공원

점심을 마친 후에 시벨리우스 공원으로 향했다. 핀란드가 자랑하는 3S란 "다국적기업 SISU(군용차량)"와 자작나무로 달구는 "핀란드 SAUNA", 그리고 민족의 얼을 음악으로 깨우친 "SIBELIUS"란다. 그 하나가 시벨리우스니 그 명성을 짐작할만하다. 민족교향시를 음악으로 나타내 민족의 정신적 지주역할을 한 시벨리우스를 기념하는 공원은 시가지 북서쪽 요트 항에 면해 있는 시민공원이다.

관광객들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이곳 사람들의 쉼터로 훌륭했다.

작은 호수와 나무들, 근처 바닷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신선했다.

주변의 뾰뾰한 자작나무 숲은 유럽에서 자생하기 좋은 수종인 듯 멋진 군을 이루고 있었다. 세상에 모든 것이 호조건만 있는 것이 아니다. 9월부터 4개월 간은 먹구름이 많고 비, 바람은 우울증 환자를 만든다고 한다.

이 공원은 1967년 에일라 힐투넨에 의해 만들

어졌고, 금속조각은 600개의 파이프를 6년간 노력 끝에 완성한 대작인데, 24톤의 스텐강철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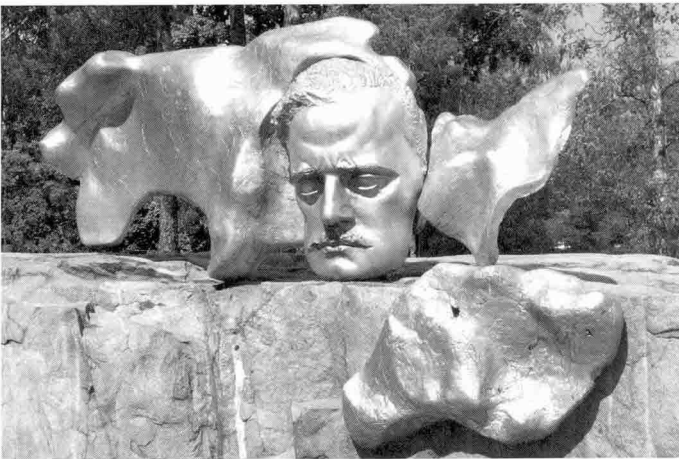
파이프오르간 모양의 시벨리우스 기념비와 시벨리우스의 두상 주변에만 사람들이 몰려 기념사진촬영에 정신이 없다.

시벨리우스는 평생을 조국 핀란드에 대한 사랑과 조국을 위해 싸운 용감한 사람들의 생애를 주제로 작곡하였으며, 교향시 <핀란드어>는 그의 대표작이며, 1957년 사망하였다. 듣고 보며, 이제 시벨리우스 공원을 뒤로하고 13시 30분 나그네는 다른 일정에 러시아를 향하여 버스에 올랐다.

애석한 것은 덴마크에서 여권을 날치기 당하여 북유럽은 현지 영사관을 통하여 입국이 가능하였지만, 러시아는 끝내 비자발급 거부라니... 관광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시간적 여유가 있어 수수료만 내면 된다고 자신 있게 약속 하더니, 이제 꼬리를 내리는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같이 동고동락한 이사장 내외와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했다.

모두 아쉬워하며, 눈물이 글썽하다. 따뜻한 인간애를 느끼는 장면이다. 필자도 마음속으로 눈물이 핑했다. 나이 탓인지, 자주 눈물이 엄습하는 때가 많아졌다. 한국에서 다시 재회를 약속하고 버스에 올랐다. 이별이란 아쉬운 추억이다...

(원고 접수일 2008년 9월 10일)



▲ 시벨리우스의 두상